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 개념과 인성교육

김 미 숙* · 권 혜 인**

이 연구는 인성교육의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을 재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는 음악에서의 인성교육 기초 연구로 서양 음악의 역사적 철학적 전통에서의 인성 개념을 고찰해보고 음악 교과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음악 교과에 서양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인성교육의 용어는 구분하여 쓰이고 있지 않다. 바람직한 인성의 도야는 음악 교육의 교육적 목적에 포함된다.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인성의 개념은 ‘영혼’, ‘마음’, ‘감정’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윤리적·종교적·정치적·사회적 목적 등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의 원리는 자기 이해의 원리, 자기 표현의 원리, 균형과 조화의 원리로 제시된다.

※ 주제어: 음악, 인성교육, 인성 원리.

차 례

I. 서 론

II.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의 이해

1. 선행 연구 분석
2.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음악과 인성교육

III.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의 원리

1. 자기 이해의 원리
2. 자기 표현의 원리
3. 균형과 조화의 원리

IV. 결 론

* 제1저자, 상명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 교신저자, 한성여자중학교 교사

I. 서론

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200).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음악은 미(美)를 다루는 예술 영역으로서 객관성과 실증성을 추구하는 학문과는 다르게 취급되어왔다. 음악에서는 ‘느낌’이 중요하다. 음악이 대상으로 하는 예술적 경험은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예술적 경험을 느낄 때 음악은 정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음악이 인성 형성에 기여하는 교과라는 인식은 감정과 감성에 기초한 음악의 예술적 특성에 기인한다.

음악은 보편적으로 인성 형성에 기여하는 교과로 인식되어왔다. 현대에서 음악을 ‘음악’ 자체로서 인정하고 향유하는 음악적 태도와 사고는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처럼 역사가 긴 것은 아니다. 그보다도 음악 역사의 중심을 이루고 발전되어 왔던 많은 음악 장르는 종교적·윤리적·사회적·교육적 목적 등에 봉사하며 음악을 통해 감정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데 기여해왔다(홍정수·오희숙, 1999: 54-59). 그러나 시대가 요청하는 음악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역할이 존재하듯 인성교육 또한 시대의 요청에 따라 인성교육의 방향과 역할이 변화한다. 요컨대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대와 사회가 요청하는 교육적 기대에 맞추어 음악에서의 인성교육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음악 교과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활발한 편이나,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의 개념과 기초 연구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각각의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의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인성교육의 방향 및 원리를 탐색하고자 한다.

Ⅱ.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의 이해

1. 선행 연구 분석

음악학자 리머(B. Reimer)는 음악은 인간의 느낌을 다루며, 인간의 느낌은 예술(음악)을 통해 교육된다고 하였다. 음악의 이러한 예술적 속성 때문에 대부분의 음악 교육 연구물에서 인성(人性)을 직·간접적으로 다룬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음악과 인성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중심으로 다룬 연구물만을 한정하여 분석하였다.¹⁾ 음악 관련 인성교육 선행 연구를 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검색해 보면 대략 학위논문 52편(석사 49편, 박사 3편)과 일반 연구논문 7편 등 총 59편의 연구물을 찾을 수 있다. 학위논문에서 인성교육 관련 연구물을 주제와 학교급 별로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학위논문에서 인성교육 연구물 분석

학교 급별	가창 합창	기악 합주	창작	감상	음악 전체	국악	기타	총
중등	5	3	1	2	14	2	NIE(2), 비행청소년 (1), 창의적체험활동 (1), 통합수업(1), 교 회음악(1), 다문화 (1), 인식조사(1)	35
초등	3	3	-	-	2	-	교회음악(1)	9
유아	1	-		1	5	1	-	8
총	9	6	1	3	21	3	9	52
백분율 (%)	17.4	11.5	1.9	5.8	40.2	5.8	17.4	100

1)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http://www.riss.kr/index.do>)를 통해 ‘음악’, ‘인성’, ‘교육’의 검색어로 검색해보면, 총1000건(학위논문462건, 국내학술지 57건, 단행본 481건 등)이 등장한다. 그러나 대부분 음악 연구의 일부 내용으로 ‘인성’을 다루고 있어 ‘인성’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물은 적다(검색일 : 2013.05.15.).

학교급은 중등이 35편으로 가장 많고 초등과 유아가 각각 9편, 8편으로 비슷하였다. 연구 내용은 음악 활동 일부 보다는 전반적인 음악과 인성을 연관 지어 다룬 논문이 전체 논문 중 21편(40.2%)으로 모든 학교 급별에서 높았다. 가창에서는 창작 동요와 합창수업, 기악에서는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합주, 창작에서는 리듬 창작을 다루었다. 일부의 연구에서 NIE,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학급 수업과 같은 내용을 인성과 연관 지어 연구하기도 하였다. 서양 음악과 국악의 비율은 '49 : 3'으로 서양 음악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인성 관련 일반 연구 논문은 총 7편으로 박진홍(2011)은 음악 비평 활동의 인성교육적 접근, 정문성 외(2012)는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인성적 변화, 양종모(2012)는 음악 단체 활동과 인성의 영향, 권혜인·이화식(2011)은 비행 청소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오상규 외(2007)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사회성 영향, 강유경(2012)은 국악에서의 인성 교육의 위상, 김명한·한길환(2011)은 합창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7편의 논문 중 3편이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에 관련된 연구임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연구된 인성교육 연구물들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집중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음악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이란 포괄적인 범위로만 인성교육을 다루고 있었다. 선행 연구에서 뜻밖에도 프로그램 개발보다 선행되어야 할 음악에서의 인성교육 기초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훌륭한 교사들은 인성교육의 시작을 당면하는 인성의 가치를 시험해보는 기회를 먼저 가진 후 그들의 규범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전략은 그 이후에 다룬다(Sanchez, 2007: 79).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음악에서의 인성교육 의미와 개념을 탐구하는 기초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2.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음악과 인성교육

이 장에서는 음악 교과에서 인성(人性)과 인성교육(人性教育)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음악과 인성의 관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먼저 인성교육의 일반적 이해에서 인성(人性)과 인성교육(人性教育)이 어떻게 의미되고 다루어지는지 살펴봄으로 인성교육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도록 한다. 『인성교육 파트너십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2007)』의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11가지 원리’에서는 사고, 느낌, 행동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인성’을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인성교육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Lickona 외, 2007).

인성은 사전적 의미에서 ‘사람의 성품’, ‘개인의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으로 풀이한다(두산동아대백과, 1996, 국립국어원, 2008). 즉, 인성은 타고난 인간의 선하거나 악한 본성과 교육과 환경을 통해 변화된 사람됨을 모두 포괄하는 성품이다.



[그림 1] 도덕교육, 인성교육, 전인교육의 관계

인성교육은 유사 개념인 인격교육, 전인교육, 도덕교육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된다.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은 미국에서 부각되었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 이민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문제에서 바람직한 인간의 성품(moral character)을 위한 도덕성 교육의 성격이 농후하다. 이때 인격(Character)은 규범적이고 가치 지향적이며 개인의 덕목보다는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덕목을 가르치는 교육이었다. 전인교육(全人教育)은 균형 잡힌 전일체(全一體)로서의 인간의 모든 자질을 육성하고자 하는 총체적 교육이다. 전인교육은 인간교육, 인본주의 교

육이라고도 한다. 인성에 지적인 측면, 정의적 측면, 행동적 측면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전인교육은 인성교육과 유사하나 전인교육은 그 이상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인성교육과 구별된다. 도덕교육(道德教育)은 도덕성의 지·정·행의 조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 도덕적 앎과 정서 그리고 행동을 포함하는 도덕성 형성 교육이다. 도덕교육은 도덕성 내(內) 지·정·행이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고, 인성교육은 도덕성 외(外) 지·정·행이 도덕성을 지향하며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전인교육은 도덕성과 큰 관련 없이 인간의 지·정·행과 그 이상의 총체가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정리하면, 도덕교육, 인성교육, 전인교육의 순서대로 개념이 확대된다[그림 1]. 인성교육은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 목적으로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도덕교육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교육 방법에서 인격교육을 일부 차용할 수 있을 것이다(차경명, 2013:32-33). 인성교육에서 ‘인성’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인성교육이라고 할 때는 분명 추구하는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다. 즉, 인성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그것이 타고난 것이든 후천적인 것이든 한 인간의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로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박의수, 2007: 3).

그러나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의 일반적 이해에서와는 다르게 인성교육, 인격교육, 전인교육, 인간교육 등을 구분하여 다루지 않는다. 또한 음악에서는 인간의 본성(本性)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는 음악 교과가 배경으로 하는 서양의 문화적 전통 때문이다. 서양 정신사에 나타난 ‘인성’과 ‘인간다움’의 개념은 실로 방대하며 서구적 인성 개념은 동일 개념이라도 그 의미가 시대나 사상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논의된다(강선보, 2008: 135). 따라서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의 개념을 탐구할 때는 음악 교과를 기반으로 한 서양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의 범위와 한계를 수용해야 한다.

1) 고대 그리스의 음악과 인성교육

고대 음악에서부터 도덕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왔다(Carr, 2010: 131). 고

대 음악의 역사를 보면, 선천적인 본성을 대신하여 ‘영혼(靈魂)’, ‘마음’ 등의 개념이 등장한다. 고대에서는 시와 음악은 거의 동일한 것이었으며, 음악, 시(문학), 춤(무용) 등 모든 예술을 하나로 보았다. 음악은 수학, 천문학, 종교, 과학과도 밀접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스의 음악 철학은 피타고라스(Pythagoras)의 천체음악론을 바탕으로 ‘에토스론(Ethos, 도덕론)’으로 정립된다. 피타고라스는 음악의 조화(하르모니아)는 다른 부분의 조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인간의 영혼은 수적 관계의 질서 체계로 이루어지는데, 음악은 영혼에 침투하여 내적 조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모방론’을 통해 음악은 인간의 성격과 행동을 모방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플라톤(Platon)과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음악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플라톤은 『공화국』에서 음악이 지나치면 사람을 나약하고 민감하게 하는 반면에 체육이 지나치면 미개하고 폭력적이며 무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음악과 체육의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음악은 성격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부드러움과 나태함을 표현하는 음악은 피하고, 절제와 용기의 덕을 길러주는 도리안 선법과 프리지안 선법의 음악을 선별하여 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복잡한 음계나 조화되지 않은 장르, 리듬, 악기가 혼합된 음악은 비판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플라톤보다는 한결 부드럽게 음악을 오락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하였다. 쾌락적인 감미로움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지만 음악을 적절히 선별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Grout et al., 2007a: 36).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론’은 음악의 가치를 ‘모방’에서 나아가 ‘표현’이라 보며 예술이 주는 즐거움과 감정의 정화작용(카타르시스)을 인정하였다(홍정수 외, 2008: 154).

고대 그리스에서 인성의 개념은 영혼에 포함되며 인간 본성의 선함과 악함을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타고난 본성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선별된 음악을 통하여 인간 내면의 본성(영혼)을 바르고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려는 것이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고대 그리스 음악 철학의 계보에서 선별하는 음악의 내용과 범 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음악의 윤리적 성격과 음악이 영혼에 미치는 영향 력에 대한 생각은 일치하였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에 영향을 미치고 인성 형성에 음악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음악과 음악적 경험은 인간 발달에 영적인 중요성과 가치가 있다고 추측되어진다(Carr, 2010: 131). 따라서 고대 그리스의 음악 교육 관점은 용어는 다르지만 인성 교육 그 자체이며 일치된 지향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고대 그리스 음악 교육의 발자취는 신화와 종교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 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교육의 주된 기능과 목적은 개인의 인격과 품위, 체력을 단련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는 정신의 발달을 위해 예술과 음악(art and music)을 기본 교과로 삼았다. 고대 그리스는 음악 을 통해 마음을 단련함으로써 이 시대가 지향한 윤리적 삶(ethos)에 가까 워질 수 있다고 믿었다(민경훈 외, 2013: 19-21).

2) 중세의 음악과 인성교육

초기의 중세 음악은 그리스의 에토스론을 상당 부분 계승하였는데, 보 에티우스(Boethius) 역시 음악이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다(Grout at al., 2007a: 64). 그러나 교회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면서 음악의 종교적 성격이 보다 강조되었다. 중세교회 예배의 중심은 미사였다. 미사는 교회 의 진리와 가르침을 전달하며 교회로의 헌신을 이끌어냈다. 말씀에 담은 성가 선율은 낭송되거나 노래 불렀다. 중세가 후기로 접어들수록 세속 음 악, 다성 음악, 기악 음악이 발달하면서 중세 음악의 흐름은 변화를 맞이 하게 된다(홍정수 외 2008: 176, 246).

중세에서 인성의 개념은 종교적 관점으로 이해된다. 기독교의 원죄설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고 신성한 소리인 인성(人聲) 음악을 기악 음악보다 선호하였다. 그리고 웅장하거나 경건한 음악을 통해 신을 찬양하였다. 이 전 시대 음악의 윤리적 성격에 종교적 성격을 더한 것이다. 그러나 중세 후기에 세속 음악이 발달하면서 음악의 종교적 성격이 희미해지고 음악의

감각적·오락적 성격이 발견되기 시작한다(Poultney, 2006: 1-4).

중세 음악 교육에서 음악은 예배의식의 절대적 부분을 차지했다. 신자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음악을 배워야 했다. 그래서 초기의 교육체제에서 음악은 중요한 네 과목(산술학, 천문학, 기하학, 음악)에 포함되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가대원을 교육하기 위한 성가학교(Scholae Cantorum)를 세웠고 기보법이 발달하면서 예배에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민경훈 외, 2013: 21-23). 중세 초기 음악 교육은 타고난 인성(人性)을 억누르고 음악을 통해 종교적 믿음을 쌓아 영성을 회복하도록 가르쳐졌지만, 중세 후기의 음악 교육은 리듬, 형식, 다성 음악 양식 등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며 억눌려졌던 인성(人性)을 음악을 통해 발산하기 시작하였다고 하겠다.

3) 르네상스의 음악과 인성교육

르네상스의 음악은 인본주의를 축으로 고대 그리스 음악 사상을 부활시키며 음악이 성격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다시금 주목하였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르네상스 시대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강조하며 육체와 정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와는 다르게 음악을 선별하거나 음악의 윤리적 성격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그리스 사상을 새롭게 적용하여 음악을 사회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양으로서 받아들인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자연과 감정을 모방하고 예찬하며 이를 표현하는 음악이 대두되었다. 르네상스 음악이 감정 표현과 관련하여 주목한 것은 음악의 ‘가사’이다. 가사는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표현되었으며 가사에 담긴 내용이 음정, 음향, 선율, 선법 등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되도록 노력하였다. 예컨대, 가사에 맞추어 음악의 선법을 고를 정도로 음악이 언어에 예속되던 때가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이다(Grout et al., 2007a: 189-190).

르네상스 음악에서부터 등장하는 ‘감정(感情)’의 개념은 음악에서의 인성교육의 중핵이다. 타고난 본성을 논하지 않는 음악에서 음악을 통해 감

정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이 정서교육인 동시에 인성교육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소리를 매개로 하는 음악의 특성상 감정의 표현이 ‘가사’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작곡가들이 인간의 언어를 음악에 적절히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곡을 쓰기 시작하였다(김춘미, 2005: 78). 음악이 인성교육의 적합한 교과로 알려져 있는 것도 감정의 이해, 감정의 소통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그 근원을 르네상스 시대의 음악 교육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 음악의 인성 개념은 ‘감정’으로 이해되며 구체적 표현으로 ‘가사’가 두드러지게 된다. 르네상스는 시대적 정신에 알맞게 감정과 가사의 표현이 명확하고 합리적이하고자 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에 있어서의 음악 교육은 대체로 종교적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그쳤다(민경훈 외, 2013: 23). 음악 교육은 루터 교회와 라틴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인성(人聲)을 사용하는 합창 음악을 권장하였다(권덕원 외, 2008: 13).

4) 바로크의 음악과 인성교육

바로크 시대의 음악은 다양한 음악 장르와 양식이 새롭게 탄생한 시기이다. 17세기의 문학, 미술, 음악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양상은 이들 모두가 극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바로크 음악은 시대의 거의 모든 작곡가들이 슬픔, 기쁨, 분노, 사랑, 공포, 흥분, 놀람과 같은 정서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발생시키는 음악적 방법을 추구하였다. 감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영혼의 상태로 여겨졌다. 음악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더 균형 잡힌 기분을 만들어내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믿어졌다. 그리하여 성악이나 기악 음악들은 거의 다 각기 상반되는 분위기의 곡을 순서대로 제공하였다. 작곡가는 자신의 개인적인 기분을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감정을 그려내려고 하였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기악 음악

에서는 특수화된 관습적 기법을 사용하였고 성악 음악에서는 가사의 정서, 성격, 극적 상황을 그려내려고 노력하였다. 예컨대, 바로크 작곡가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C. Monteverdi)의 성악 음악과 극음악은 언제나 가사에 완벽하게 잘 들어맞으며, 여러 장식과 장르의 음악을 섞음으로써 감정이나 인간성을 표현하는 데 탁월했다고 평가받았다(Grout et al., 2007a: 322-325). 바로크 음악 양식을 대표하는 오페라 또한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줄거리를 가진 무대 예술 음악이다. 바로크 시대는 부드러운 엄격함, 완벽한 구조감, 창조적 실험 정신으로 설명된다(Wechsber, 1997: 94).

바로크 시대 음악의 인성의 개념은 사회적 성격을 띠는 ‘극적 감정’이다. 그러나 유념할 점은 이때의 극적 감정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보편화되고 객관화된 감정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극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음악을 통해 음악에 몰입하고 열광하였다. 작곡가와 연주자들도 극적 표현을 통해 청중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부와 명성을 얻었다. 당대 음악가들 간의 과열된 극적 표현의 경쟁은 보다 새로운 음악 양식과 형식의 발달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바로크의 극적 음악은 종교적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적극 사용되었다. 군주들은 정치적 선전과 통치의 수단으로 음악가들을 적극 후원하였으며 국가적 음악 스타일을 만들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 음악은 웅장하고 위엄 있으며 화려하다.

바로크 시대의 음악 교육은 실리적인 실학주의 교육사조에 영향을 받아 인간의 내면적·미적 심성의 도야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교육의 가치는 외면하였다. 인간 교육의 기반으로서의 음악 교육 목표 또한 무시되어버린 시기이다(민경훈 외, 2013: 24-25). 실증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후기 바로크 시대의 음악 교육은 아카데미에서 높은 수준의 음악 교육으로 음악가를 양성하던 방식에서 현실 중심으로 변화한다. 교육학자 로크(Locke)와 프랑크(Francke)는 음악으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세속적, 오락적으로 치우친다며 음악 교육을 비판하기도 했으나, 교육학자 코메니우스(Comenius)와 밀턴(Milton)에 의해 도덕심을 길러주고 성품과 태도를 온화하게 해주는 학교 교육에서의 음악 교육의 필요성이 지지받기도 하였다(권덕원 외, 2008: 14-15).

5) 고전의 음악과 인성교육

고전 시대의 음악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자연스러운 음악 양식을 추구하였다. 왕과 교회의 권력이 축소되면서 음악의 정치적 역할이 줄어들고 중산층으로 대변되는 대중이 새로운 음악적 수요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고전 시대에도 여전히 연주자를 즐겁게 해주면서도 광범위한 관객에게 호소력을 지녀야 되는 작품을 생산하는 일은 작곡가에게 최고로 중요한 일로 이해되었다(Grout et al., 2007a: 545). 다양한 사람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해주는 음악이 매력적인 음악으로 인정받던 시대인 것이다. 음악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볍고 밝은 음악이 인기를 끌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으로 대변되는 고전 음악 작곡가들은 천재성을 발휘하여 독창적인 음악을 창조하였다.

고전 시대 음악의 인성의 개념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이전 시대와 다르게 정도를 벗어난 표현은 인위적이라고 평가받았다. 균형과 조화를 중시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자연스러운 감정의 배경이 되었다. 구성이 잘 짜인 체계적인 음악이 우수한 음악으로 인정받았다.

고전 시대의 음악 교육도 개인이 가진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의 중대한 변화는 보통 교육 제도가 발달하였으며, 아동 중심 교육관을 통해 교육의 보편적 원리와 음악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민경훈 외, 2013: 26).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면서 루소(Rousseau), 바제도우(Basedow), 페스탈로치(Pestalozzi), 파이퍼(Pheiffer), 네겔리(Nageli) 등의 교육학자들은 아름답게 노래하는 법, 음악을 감상하는 법, 아동을 위한 단순하고 쉬운 가창 교재, 단계적인 교육 및 교재 등을 제시하면서 음악 학습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중에서도 교육학자 페스탈로치는 음악을 종교적, 도덕적 측면에서 인간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보며 가창교육을 강조하였다. 미국에서는 집단적·개인적 노래 학교(singing school)가 유행하였는데 공적인 음악 교육을 대신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많은 노래 책과 다양한 음악회, 합창 음악 등이 미국에서 성행하였다(권덕원 외,

2008: 17-19).

6) 낭만의 음악과 인성교육

낭만 시대의 음악은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시민 혁명, 경제적으로는 산업 혁명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다양한 음악적 흐름이 특징적인 낭만 시대에서 음악가들은 음악을 통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였는데, 이것이 곧 음악가의 개성과 독창성으로 여겨졌다.

낭만 시대 음악의 인성의 개념은 ‘주관적 감정’이다. 다양성이 인정받게 되는 낭만 시대 음악가는 이전 시대의 음악이 일관된 흐름을 지니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되게 자신만의 차별화된 독창성을 반영한 음악 활동을 펼치려 하였다. 예컨대, 말러(G. Mahler)의 ‘제8번 천인의 교향곡’과 같은 대규모 음악 작품과 멘델스존(F. Mendelssohn)의 무언가와 같은 소규모 음악 작품은 음악적 양식은 달라도 각각의 독창성으로 낭만 시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음악가들은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인성을 다듬기 보다는 남과 다른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으로 주목받고자 하였다. 음악에도 이를 반영하여 감정의 주관적 표현은 폭을 넓혔다. 음악가들은 개인의 삶과 경험을 음악으로 표현하였고 이는 종종 표제를 통해 청중에게 직접 전달되기도 하였다.

낭만 시대의 음악 교육은 이전 시대의 기초적인 음악 교육 방법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19세기 초 주지주의의 영향으로 음악 교육과 예술 교육의 가치가 쇠퇴하기도 하였다. 쉴러(F. Schiller)가 주장한 예술교육론 등은 상류계층이나 일부 사람을 위한 음악 활동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주지주의와 과학만능주의의 폐해가 자각되면서 일반 대중을 위한 예술교육운동이 전개되었고 인간 교육에 있어서 예술의 가치와 필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민경훈 외, 2013: 29-30). 학교 교과목으로서 음악의 필요성이 높아진 결과, 학교 음악 교육(보통교육)으로서 제도적 정착과 질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시민 학교 교사는 의무적으로 성악을 지도할 수 있어야 했으며 독일 김나지움(정규 인문계 중

등학교)에는 독립적인 음악 교사를 두도록 하였다. 미국에서도 음악의 종교적, 오락적,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는 움직임은 학교 음악 교육 내에서의 음악 교육을 이끌어냈다. 반복을 통한 암기교육, 악보 읽기 교육, 체계적 시창 훈련 교육이 강조되었다. 낭만 시대의 음악 교육을 이끌었던 교육자는 켈터(Zelter), 훔볼트(Humboldt), 홀러(Hullar), 괴테(Goethe), 쉐러, 우드브리지(Woodbridge), 아이브스(Ives), 메이슨(Mason)등이다(권덕원 외, 2008: 19-21). 미국에서는 페스탈로치의 영향을 받은 네프(Naef)가 ‘페스탈로치 음악 지도 체계의 원리’를 발표하였으며 메이슨은 공립학교 교육 과정에 음악을 정규 교과로 포함시켰다. 아동 합창과 같은 아동 음악 교육 연구가 활발한 이때 미국음악교사협의회도 결성되었다(민경훈 외, 2013: 30-32).

7) 현대의 음악과 인성교육

현대 음악은 다양성의 공존이다. 현대는 빠른 속도로 기술 문명이 발달하였으며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현대 음악은 예술의 정의와 한계에 도전하며 새로운 소리, 새로운 방식을 찾아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허영한 외, 2005). 현대 음악가들은 심지어 하나의 음악적 흐름을 지속하기보다는 변화로 거듭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현대 음악에서는 독창적 음악의 가치가 즐거운 음악의 가치보다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 음악, 팝음악, 뮤지컬 등의 음악 장르가 이때 새롭게 생겨났다. 한동안 멀어졌던 음악과 정치의 관계는 현대에 이르러 다시 가까워진다. 국가와 정부는 국가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음악을 적극 후원하는 동시에 규제하였다.

현대 음악에서 인성은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하였다. 현대의 표현주의 음악 사조에서 인간 내면의 주관적 감정을 탐구하여 대담하고 강렬하게 표현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현대 음악의 다양한 움직임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현대 음악가들이 보다 신선함을 느끼고 열중한 것은 음악의 구성과 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음악의 인성적 가치에 주목한

것은 음악을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였던 정치가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의 음악 교육은 페스탈로치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음악교육 철학, 교수 내용 및 방법, 학습 자료의 활동 등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달크로즈(Dalcroze), 코다이(Kodaly), 오르프(Orff) 등의 음악 교육자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고안하였다. 학교 교육과정에서 음악 교육 또한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음악 교육은 듀이의 실용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전인적인 아동을 교육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예술 과목은 필수적으로 모든 학교 경험의 일부분에 속하게 되었다. 학교 음악 활동이 팽창하면서 미국 음악 교육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미국음악교육자협회(MENC)가 이 무렵 구성되었다. 이때 청년 작곡가 프로젝트(YCP), 맨해튼빌 음악 교육 과정 프로젝트(MMCP), 탕글우드 심포지엄 등이 수행되었으며, ‘미국 2000: 교육 수월성’을 통해 음악이 중요 교과로 인정받게 되었다(민경훈 외, 2013: 3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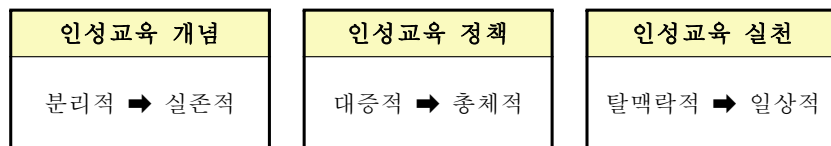
Ⅲ.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의 원리

앞 장을 통해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음악과 인성교육의 연관성을 살펴 보았다. 음악과 음악 교육의 역사에서 음악이 인간의 품성에 변화를 가져 온다는 사고는 음악교육의 기본 출발점이었다. 바람직한 인성의 도야는 어느 시대에서건 음악과 음악 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에 포함되었다.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 방향과 원리 제시에 앞서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일반적인 문제점(강선보 외, 2008; 최준환 외, 2009; 현주, 2009; 현주2012)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을 단기적, 처방적, 예방적인 교육으로만 인식하여 생활지도에 편중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인성교육을 특정 교과(도덕과)와 연관 짓거나 어느 교과와도 속하지 않은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일상과 거리가 먼 추상적

이거나 이상적인 지식 위주의 덕목이 가르쳐지고 있다. 다섯째, 교과와 연계한 인성교육, 교과의 특성을 살린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섯째,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이고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이와 같은 기존 인성교육 접근을 비판하면서 서덕희(2012)는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접근이란 인성교육의 개념은 ‘실존적’, 정책은 ‘총체적’, 실천은 ‘일상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림 2].



[그림 2] 미래지향적 인성교육의 접근

학교에서 인성교육은 지식교육과 분리된 관계로 잘못 개념 정의되기도 한다. 즉, 교과의 고유한 교육내용이 있고 그와 별개로 그와 관련된 인성교육내용을 별도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인성교육은 모든 교육의 한 측면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어떤 교육이든간에 그 배움의 내용이 그 자체의 내재적 가치가 있으며, 그 내용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규범과 태도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성교육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규 음악수업에서 실시하는 합창대회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간과한 채 음악 수업에서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성교육의 개념이 실존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체험에 근거하여 지식과 정서, 가치가 모두 통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인성교육의 개념이 실존적일 때 인간과 세계, 지식과 가치, 기술을 분리하여 다루지 않게 된다(서덕희, 2012: 11-12).

학교의 역량은 학생의 인성, 사회적 감정 표현 기술, 학업능력으로 발휘된다. 도덕적인 행동과 봉사에 의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학생들의 지도

력이 향상되며 목표 설정, 의사 결정, 문제 해결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인성 교육을 통해 얻게 된다(Bencivenqa 외, 2003: 61-64).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정책은 대증(對症)적 관점으로 잘못 시행되기도 한다. 대증적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적 증후에 대체하여 그 증후만을 없애기 위한 처방적 정책을 마련하는 방식을 뜻한다. 예컨대, 학교폭력의 원인을 인성교육의 부재라고 단정을 내리고 모든 교과와 교육 과정을 사례와 실천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정책 방향이다. 인성교육은 일상적인 정규교육과정과 학교라는 생활세계의 맥락을 교육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체험구조를 성장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인성교육의 ‘총체적’ 접근이다(서덕희, 2012: 13). 이를 위하여 개인주의적, 형식주의적, 관료주의적인 학교 문화에서 벗어나 관계, 협력, 배려, 상생을 강조하는 학교 문화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실천이 탈맥락적이라는 지적은 교과에서 학습되는 인성교육의 내용이 현실 세계와 유리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하여 기성세대를 대변하는 교사는 각 교과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이에 따른 규범과 태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럼킨(Lumpkin, 2008)은 교사는 청소년의 삶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 있는 역할 때문에 공정과 정직 같은 도덕적 덕목을 갖춘 행동 즉, 전문가다운 처신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사는 인성과 도덕적 덕목을 가르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인성교육은 일상에서 학생과 교육적인 상호과정을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갈등과 체험은 인성교육 현장 그 자체이며 교사와 학생은 일상적 차원에서 실천공동체를 형성하고 일상적인 인성교육을 실천해야한다. 21세기의 인성교육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위한 인성교육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정보 기술 발전과 더불어 좋은 인터넷 사용자를 위한 인성교육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Milson, Andrew J·Chu, Beong-Wan. 2002 ; Milson. 2001).

인성교육(도덕교육 또는 가치교육)이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강화하고 긍정적 윤리적 사회적 경향과 경쟁력 발달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수법

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이다(Berkowitz, 2011: 153). 나바에즈와 랩슬리(Narvaez · Lapsley, 2008)는 통합적인 윤리교육을 위한 ‘도덕 인성 발달’을 5단계로 제시한다. 첫째, 인성 발달을 위한 지원 환경, 둘째, 윤리 도덕적 훈련, 셋째, 도제식 교수 학습 지도, 넷째, 내면화를 위한 자기 조절, 다섯째, 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 접근의 채택이 그것이다.

인성교육의 기본원리로, 조난심은 통합적 접근의 원리, 지속성의 원리, 관계성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체험의 원리를 제시한다. 통합적 접근의 원리란 학교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덕목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지속성의 원리는 학교생활 속에서 덕목의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관계성의 원리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자율성의 원리는 인간적인 덕성을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체험의 원리는 학생 스스로 덕목과 관련된 행동을 실천해봐야 한다는 것이다(조난심 외, 2003: 322).

위에서 살펴본 인성교육의 일반적 이해는 음악 교과에 일부 적용될 수 있지만 음악 교과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음악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인성교육의 새로운 교육 원리가 정립되어야 한다.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 원리를 세우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이해(성찰)의 원리이다.

둘째, 자기 표현의 원리이다.

셋째, 균형과 조화의 원리이다.

1. 자기 이해의 원리

인간은 실존적 존재로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에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개별적 인성을 자각하고 이를 높은 경지로 갖고 뉘어나가는 것이 주요 과제라 할 것이다.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따르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2세에서 18세까지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는 정체감 형성

의 결정적 시기로, 청소년기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진로 선택의 문제에서 내적·외적 갈등을 겪기 쉽다. 이 시기에 자기 이해를 위하여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나’의 특성에 접근하며 자아개념(self-concept)을 형성하게 된다.

음악은 자기 이해를 높이는 데 탁월한 교과이다. 소리를 매개로 음악을 체험할 때 음악에 대한 느낌과 선호는 사람마다 다양하다. 느낌과 선호가 각기 다양한 것은 ‘나’와 ‘너’의 특성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음악 심리학에서는 이와 같은 음악 선호를 사회 심리학적 요인과 개인 내적 요인으로 설명한다. 음악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은 첫째, 친숙성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친숙한 음악을 낯선 음악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각성수준이다. 음악이 표현하는 신기함, 놀람, 복잡함, 혼란 등의 정서가 음악을 듣는 개인에게 특별한 각성 자극을 일으킬 때 음악으로부터 깊은 정서와 인상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복잡성이다. 감상자의 음악적 이해도에 따라 ‘쾌’와 ‘불쾌’를 일으키는 음악의 복잡성의 정도는 다르나 통상 음악의 복잡성이 음악에 대한 호기심과 선호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다(박유미, 2009: 255-259). 그러므로 어떤 음악을 선호하느냐는 나의 내적 특성에 대한 탐구와도 연관된다.

음악을 자기 이해로 접근한 것은 주로 ‘작곡가’들이었다.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까지는 군주와 교회의 후원을 받으며 의뢰받은 작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였다면, 고전 시대 작곡가들부터는 의뢰받은 작품 외에 스스로의 창작 욕구에 의한 작품 창작에 주력하기 시작한다. 음악을 통해 생(生)과 그 의미를 찾으려 한 대표적 작곡가로 고전 시대와 낭만 시대의 가교 역할을 한 작곡가 베토벤(Beethoven)을 들 수 있다. 특히 베토벤의 마지막 기악 작품인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와 후기 현악 사중주는 서양 음악을 최고의 수준에 올려놓은 작품들로 평가되는 동시에 자기 성찰적인 곡으로 내면세계로 고립되었던 한 인간이 만들어 낸 완전히 순수하고 추상적인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는다(W. Thompson, 2007: 89). 대다수의 작곡가들은 음악을 통해 개인의 삶과 음악을 성찰하며 자기 이해를 하고 이를 작품 세계로 펼쳐나갔다.

음악교육에서 음악 지도의 핵심은 소리의 표현력과 함께 소리 그 자체가 지닌 미적 가치를 충분히 감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민경훈 외, 2013: 98). 음악의 예술적 경험은 일상적인 경험과 달라서 ‘나’에 대한 인식과 탐구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교사는 음악교육을 통해 ‘나’의 특성을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기 이해의 원리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의 심미적 감수성 및 태도를 계발하여 학생이 미적 대상을 지각하고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은 이러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 개인 내적 외적 특성에 대한 이해, 자각, 통찰에 이를 수 있다.

2. 자기 표현의 원리

엘렌 다사나야케(Ellen Dissanayake)는 『미학적 인간: 호모에스테티쿠스(1992)』에서 예술은 표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이며, 예술의 핵심은 특별화하기의 욕망이라고 주장한다. 음악은 기계나 정보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예술 표현 영역이다. 또한 음악은 언어로는 표현되지 못하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영역이다.

메리엄(A. P. Merriam)에 따르면 음악은 감정 표현, 커뮤니케이션, 상징적 표현 등의 기능을 가진다. 음악은 사랑, 슬픔, 기쁨, 공상, 놀람 등의 감정적 느낌을 표현하는 데 쓰이며 음악을 통해 개인적이거나 집단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Rudolf·David, 1997: 23). 헤르더(J. G. Herder)도 인간의 모든 감각 중 청각이 가장 내면적이기 때문에 다른 예술보다 음악은 더 깊이 파고들고 더 표현적이라고 주장한다(홍정수·오희숙, 1999: 246). 그러나 시대의 경향에 따라 음악에서 표현의 대상은 자연, 신, 사람, 감정 등으로 조금씩 달라졌다.

자기 표현의 원리에 따라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였던 역사적 시기는 낭만 시대 음악일 것이다. 격양되고 화려한 바로크 시대의 음악도 극적인 감정을 표현했지만 양식화된 감정이라는 점에서 엄밀히 따지면 자기 표현의 원리와 거리가 멀다. 질풍노도(Sturm und Drang)의 낭만 시대는 이성

과 감정의 균형이 깨지고 ‘나’의 표현, 주관주의, 감정이 지배한다. 낭만주의자들은 존재의 가장 내면적 본질과 가장 내면적 리듬을 구하고 탐색하였다. 헤겔은 “예술가는 내용을 자신으로부터 끌어내는 데, 참으로 자신을 규정하며, 자신의 상황들과 감정들의 무한성을 관찰·기억·표현하는 인간 정신”이라 하였고, 쇼펜하우어도 “음악은 외면적·구체적 재료 없이 의지의 본질 자체를 표현”한다고 하였다(Ulrich, Michels, 2002: 403-405). 자기 표현은 작곡가 뿐만 아니라 연주자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었다. 비르투오소, 마에스트로 등으로 불리며 연주자의 지위가 격상되자 연주자들은 다른 연주자와 차별성을 가지도록 원 작품에 충실하면서도 자신의 개성 즉, 자기 표현을 음악에 더하고자 하였다.

방식은 다르지만 현대 음악도 자기 표현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현대 음악 작곡가는 기존의 예술 표현 방식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예술 표현을 시도하는 데 그 배경에는 ‘나’의 사상, 경험, 일상 등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표현해내고자 하는 의도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음악교육에서 표현력의 개발은 음악 교과를 통해 달성해야 할 중요한 교과 목표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표현, 감상, 생활화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바른 자세로 표현하기,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창의적으로 음악 만들어 표현하기로 이루어진다. 표현력의 개발이 인성교육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 표현 능력을 키우는 것이 일상 영역에서의 표현 능력까지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 인성을 도야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음악 치료에서도 자기 표현 향상을 위해 음악을 적극 활용한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작곡가와 연주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대신 표현한다.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을 가질 때 혹은 적절한 형태로 느낌을 잘 형성시키지 못할 때 또한 우리가 어떤 느낌들을 자신의 것으로 원하지 않을 때나 거부할 때에는 스스로를 대신하여 표현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음악적 자기 표현은 내면의 것을 외부로 끌어내어 객관화하게 한다. 스스로 소리 내고 스스로 그 소리 낸 것을 듣는 과정을 통해 무의식

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불러오며 우리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Bruscia, 1998: 86-90). 리머도 예술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느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인간 내면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느낌은 다 예술에 담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무한한 자유와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음악 속에 내재된 느낌의 세계를 탐구해 나갈 수 있다(석문주 외, 2006: 28). 음악을 통해 탐구되고 표현되는 인간의 생각과 느낌은 상호보완적이며, 이 과정은 곧 인성의 계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자기 표현의 원리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음악적 언어를 활용하여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한 사람이 자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기의 정서와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그의 인성은 일관되고 안정적인 것이다.

3. 균형과 조화의 원리

음악에서 많은 음이 동시에 울리지만 조화를 이루며 울리기에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다. ‘조화’는 고전적인 미의 이상이다(Ulrich, Michels, 2002: 337). 설러는 인간에게는 감정과 이성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이 욕구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보았다. 인간에게는 미적 대상을 ‘논리적’으로 보는 경향과 ‘감각적’으로 보는 경향의 양면이 있는데(홍정수·오희숙, 1999: 250), 아름다움을 통해 인간의 대립적인 두 차원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집단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인간이 지나치게 사회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보다 현대 사회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다양성과 상대적 가치가 존중받다보니 개인의 인성이 사회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인의 인성이 개성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를 넘으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사회화와 개인화를 조화롭게 추구

해야할 사명을 가진다.

균형과 조화의 원리가 특히 강조되었던 시기는 고전 시대의 음악일 것이다. 자연스럽고 단순한 음악은 명쾌한 화성과 형식으로 표현되었다. 고전 시대의 음악은 형식과 내용, 반복과 변화, 긴장과 이완이 체계적인 질서를 이룬다. 이 시대 음악은 난해하거나 복잡하지 않은 덕분에 오늘날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기며 자주 연주되고 있다.

음악교육에서도 균형과 조화는 교수 학습의 방향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이다.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이해와 능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영역별·단계별로 수직적·수평적 연계성을 두어 지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균형과 조화의 원리에 따르면, 그 자체가 균형과 조화를 내재하고 있는 음악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인성이 자연스럽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교사는 음악 활동과 음악 작품에 내재되어있는 균형과 조화의 요소를 찾아 학생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음악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창작되는 과정과 연주되는 과정 모두 조화로워야만 한다. 오케스트라에 속한 여러 악기가 하나 같이 자기의 소리를 뽐내려고만 한다면 통일된 음색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음악의 예술성은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소리가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해지며 인성의 도야도 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에서 균형 잡힌 발달을 이룰 때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하나의 원리로 연결된다. 또한, 균형과 조화의 원리를 따라 개인의 인성은 외적으로는 사회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내적으로는 인성 덕목 내에서의 중용과 인성 덕목 간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 개인의 인성이 외적·내적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개인의 인성은 안정과 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이 연구는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을 재정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다. 바람직한 인성의 도야는 음악교육의 기본적인 교육 목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 연구는 대부분 영향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서양 음악의 역사 철학적 전통에서의 인성 개념을 고찰해보고 음악 교과에서의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원리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을 서양 음악의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인성교육의 일반적인 이해와는 다르게 음악 교과에서는 인성교육의 용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인성은 ‘영혼’, ‘마음’, ‘감정’ 등으로 표현되며 인성의 개념도 시대와 음악가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전개되었다. 서양음악사에서 인성 개념이 전면에 쟁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않았는데 각 시대의 음악 일반과 음악교육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는 전 시대에서 음악과 인성의 상호작용을 당연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인성에 끼치는 음악의 영향력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윤리적·종교적·정치적·사회적 목적 등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음악 교과에서 고대와 중세에 특히 절대적으로 인식되던 인성의 이념이 해방된 것은 낭만 시대이다. 고대와 중세에는 ‘바른’ 인성에 대한 불변하고 초월적인 이념이 존재하여 그 이념에 따라 음악도 ‘옳고 그른’ 음악으로 이분되었었다. 그러나 그 이념은 고전 시대 계몽주의에서 깨어지는데, 음악을 통해 자연성과 절제적 표현성을 추구하는 것이 고전 시대의 시대적 쟁점이었다. 성악 음악이 중심일 때는 가사를 통해 음악을 파악하고 가사를 표현해내고자 했지만 고전 시대 이후 기악 양식이 발달하면서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음악이 음악 언어로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낭만 시대에는 음악이 작곡가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존재로 인식되는 단계에 이른다. 음악에 대한 절대적 이념이 무너지면서 절대적 인성의 이념도 함께 약화되었다. 따라서 음악과 인성이 가장 자유로우면서 다각적이고 다면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유기적으로 다루어지는 때는 낭만 시대이다. 현대에 이르면, 음악가의 인성, 그리고 그 인성이 표현된 음악적 개성이 더는 새롭거나 신선하지 않다. 그래서 현대 음악가는 인성과 음악의 연계에 주목하기보다 음악과 예술 개념 자체에 도전하는 방식을 꾀한다.

고전과 낭만 시대를 거치면서 음악교육 제도와 방법 등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전문 음악가들의 음악적 태도와는 다르게 음악교육에서는 음악의 인성적 영향력과 그 가치를 존중하고 교육의 목적으로 삼았다. 그래서 현대 음악 교육가들은 음악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음악교육의 전통에서 벗어나 음악을 음악 그 자체로 목적에 둘 것을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음악 교과에서 인성의 개념은 시대가 추구하는 음악과 음악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규범적 목적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성의 개념 정립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있어 일부 한계점을 지닌다고 하겠다.

Ⅲ장에서는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의 원리를 첫째, 자기 이해의 원리, 둘째, 자기 표현의 원리, 셋째, 조화와 균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자기 이해의 원리에 따르면, 음악교육을 통해 교사는 학생이 개인 내적·외적 특성에 대한 이해, 자각, 통찰에 이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기 표현의 원리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음악이 가진 표현적 속성을 이해하고 음악적 언어를 활용하여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조화와 균형의 원리에 따르면, 교사는 음악 활동과 음악 작품에 내재되어있는 균형과 조화의 요소를 이해함으로써 인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개인의 인성은 음악을 통해 탐색되고, 안정화되며, 통합을 이룬다.

이 연구를 통해,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의 가치와 역량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음악 교과에서의 인성교육 연구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과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시대에 걸맞은 확장되고 다원화된 세계관과 인간관을 고려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인성적 접근을 제언해본다.

마지막으로, 이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음악 교과에서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성 연구를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선보 외(2008). **인성교육** 경기도: 양서원.
- 강유경(2012). 한국음악에 있어 거문고의 위상 - 인격함양과 인성교육의 위상을 중심으로. **음악교육연구**. 41(3). 1-26.
- 교육인적자원부(2009)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11-361호).
- 권덕원 외(2008).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권송택 외(2010). **음악통합이론 옴니아르스** 경기도: 음악세계.
- 권혜인·이화식(2012). 법무부 산하의 특성화 학교인 고봉중·고등학교에서 음악을 적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음악교육연구**. 40(3). 155-183.
- 김명환·한길환(2011). 합창과 인성교육: 합창을 통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정담론**. 5(2). 267-292.
- 김춘미(2005). **서양 음악 문화사 강의**. 인천: 도서출판 예종.
- 민경훈 외(2013).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 박유미(2009). **음악심리학의 이해** 서울: 음악춘추사.
- 박진홍(2011). 음악비평 활동의 창의를·인성 교육적 접근. **음악교육공학**. 13: 95-114.
- 서덕희(2012). 학교현장 안정화를 위한 인성교육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12-02-01.
- 석문주 외(2006).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경기도: 교육과학사.
- 양종모(2012). 음악 단체 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조사. **음악교육연구**. 41(2). 227-255.
- 오상규·김원중(2007). 음악활동을 활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사회성, 교육관계 및 대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2). 513-532.
- 정문성 외(2012).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이 예술 및 인성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0(2). 267-284.
- 조난심 외(2003). **도덕교육학신론** 서울: 문음사.

- 차경명(2013). 인성교육 개념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철학아카데미(2006). **철학, 예술을 읽다** 경기도: 동녘.
- 최준환 외(2009). 인성교육의 문제점 및 창의를 · 인성교육의 이론적 고찰. **창의력교육연구**, 9-2. 89-112.
- 허영한 외(2005). **들으며 배우는 서양 음악사 1,2** 서울: 심설당.
- 현주(2009). 중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9-09.
- 현주(2012). 학교 인성교육의 의의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OR 2012-05-2.
- 홍정수 · 오희숙(1999). **음악미학**. 서울: 음악세계.
- 홍정수 외(2008). **두길 서양음악사 1, 2**. 서울: 나남출판사.
- Bencivenqa, Anthony S · Elias, Maurice J(2003). Leading Schools of Excellence in Academics, Character, and Social-Emotional Development. *NASSP Bulletin*, 87(637), 60-72.
- Berkowitz, Marvin W (2011). What Works in Values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0(3), 153-158.
- Bruscia, K. E.(1998). *Defining Music Therapy*. 최병철 역(2010). **음악치료**. 서울: 학지사.
- Carr, David(2010). Exploring the Spiritual and Moral Light and Dark Sides of Musical Experience and Appreciation.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Review*, 18(2), 130-144.
- Dissanayake, Ellen(1992). *Homo Aestheticus* 김한영 역(2009). **미학적 인간 호모 에스데티쿠스** 서울: 예담출판사.
- Licokona 외(2007). CEP's Eleven Principles of Effective Character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
- Grout, Donald Jay 외(2006) *A History of Western Music* Seventh Edition by Donald Jay Grout. 민은기 외(2009). **그라우트의 서양 음악사** 서울: 이앤비플러스.
- Lumpkin, Angela(2008). Teachers as Role Models: Teaching Character

- and Moral Virtues.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79(2), 45-49.
- Milson, Andrew J(2001). Fostering Civic Virtue in a High-Tech World.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ducation*, 16(1), 87-93.
- Milson, Andrew J · Chu, Beong-Wan(2002). Character Education of Cyberspace: Developing Good Netizens. *Social Studies*, 93(3), 117-119.
- Narvaez, Darcia · Lapsley, Daniel K(2008). Teaching Moral Character: Two Alternatives For Teacher Education. *Teacher Educator*, 43(2), 156-172.
- Poultney, David(1996). **서양음악사**. 이복남 역(2007). 서울: 예당.
- Sanchez, Tony(2007). The Forgotten American: A Story for Character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ducation*, 21(2), 79-90
- Ulrich, Michels(1977,1985). Dtv-Atlas zur Musik 홍정수 외(2002). **음악은이** 서울: 음악춘추사.
- Thompson, Wendy (2001) 정임민(2007). **위대한 작곡가의 생애와 예술** 서울: 마로니에북스.
- Wechsber, Joseph(1997). 홍세원 역. **해설음악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of Character and Character Education in Music Education

Kim, Mi Sook · Kwon, Hae 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stablish character education in music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e concept of “character” in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tradition of Western music was studied, and the principal of ideal character education was proposed. There is no clear definition of “character education” in music, but it has always been in the major purpose of music education. “Character” is expressed as “soul” “mind” “feeling” in philosophical points of view, and it was used with variety meaning in various area such as morals, religion, politics, and society.

In music education, the principals of character education are self-understanding, self-expression, balance and harmony.

key words : Music, Character Education, Principle of Character.

투고일: 2013년 5월 25일, 심사(수정): 6월 15일(7월 7일), 게재확정일: 8월 10일